

大韓齒科醫師協會 創立 第66周年紀念

- 第38回 綜合學術大祭典 盛況裡에 完了
- 人類를 疾病으로부터 保護하려는 崇高한 醫術의 理念을 具現키 위한 “2000年代의 齒科醫療”의 大命題아래.

\* 약 4,000치과인의 參집아래 大韓생명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理論과 臨床이 調和되고 昇華되는 값진 契機가 될 綜合學術大會 開會式〉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8회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6, 17, 양일간에 걸쳐 대한생명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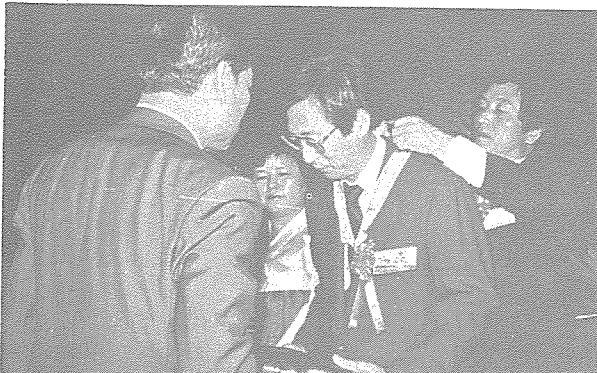
사전등록 3,300명, 현장등록 400명과 치과기공사, 위생사, 상공인 등 4,000치과인이 참가 공전의 성황을 이룬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4 편의 특별강연과 2000년대 치과교육의 전망이라는 주제의 패널토의 3개, 심포지엄의 13연제, 10개연제의 해외연수자 발표 각과를 망라한 중식토론(Luncheon of Learning), 그리고 테이블 크리닉, 포스터발표를 위시하여 27개 업체가 참여한 각종 기기, 재료등 전시 등등으로 치과의학계가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향상된 모습을 역역히 볼수 있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석상에서 치협대상(학술부문)에 서울대 치대 보존학 교수이며 서울대 치대학장을 역임한바 있는 金英海교수가, 치과의료문화상에는 서울 세종로에서 개원하고 있으며 치과연구 발행인인 李丙台박사가, 또한 신인학술상에는 충남대 의대부속병원 치과과장인 鄭弼燾박사가 각각 수상했다.



〈學術人賞을 受賞하는 金英海교수〉



〈치과의료문화상에 李丙台博士〉



〈신인학술상 수상자 鄭弼燾박사〉